

나눔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102cm의 작은 키를 가진 이금자 씨.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왜소한 몸으로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자루를 끌고 곳곳을 다니며 매일 종이컵을 모아왔다. 그리고 종이컵을 모아서 거둔 수익금은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다. 이금자 씨의 이 작은 몸짓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컵 모으기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그녀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박수와 응원을 보내게 되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소외당했던 평생의 상처를 봉사로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는 이금자 씨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거인이다.

눈물과 설움의 세월을 지나

“이금자 아주머니, 우리와 같이 봉사 활동 하십시오.”

“나야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안 좋은데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해요.”

5년 전 처음 원주시 새마을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자고 권유했을 때는 이렇게 거절하던 이금자 씨였다. 불 때마다 권유를 하는 것이 귀찮아서 피해 다니기도 했는데 여러 번 권유를 받다 보니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나가 보았다. 원주시새마을회에서 종이컵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컵 모

으기는 수고로움에 비해 성과가 적어 봉사자들도 기피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금자 씨는 “이 정도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종이컵 모으기를 시작했다. 늘 무시 받고 소외되어 살아 온 이금자 씨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종이컵을 모으면서 60 평생에 이제서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모았지요. 저는 종이컵을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았어요. 나의 몸은 비록 보잘 것 없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살아오면서 이금자 씨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금자 씨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왜소증이라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연이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자 혼자 남겨진 채 이집 저집을 떠돌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 했다. 성인이 된 다음에도 파출부, 목욕탕 청소까지 안 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굶은 일을 전전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다.

삶의 신산스러움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 죽고 싶단 생각도 많이 했다.

이렇게 가난해서 무시당하고 장애인이라서 소외당하고 심지어는 형제들로부터도 외면 당해야 했던 그늘진 이금자 씨의 삶에 새로운



종이컵을 모아 기부하는 이금자 씨

활력을 불어 넣어 준 것이 바로 봉사였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작은 몸짓

지난 5년 동안 1년 365일, 특별한 외출이 있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 아니면 이금자 씨는 하루 두 번, 종이컵 모으기를 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에 13~15kg를 수거해, 일일이 정리하고 새마을회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아파트 지하실에 쌓아 두곤 했다.

그간 이금자 씨가 혼자 모은 종이컵의 무게만 해도 2010년에 500kg, 2011년에는 3톤이나 된다. 이듬해인 2012년에도 4톤, 2013년에는 4.5톤을 수거했고, 2014년 현재까지는 3톤이나 되는 종이컵을 모았다. 5년 동안 약 15

톤, 수량으로만 환산해도 450만 개가 넘는다.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결과였다. 더 대단한 것은 1년을 꼬박 종이컵을 모아서 생긴 60만 원을 해마다 불우청소년에게 전달해 왔다는 점이다.

처음에 종이컵 모으기를 시작할 때는 “그 몸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일년이 가도 흔들림 없이 종이컵을 모으는 이금자 씨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제는



이금자 씨가 혼자 모은 종이컵의 무게만 약 15톤. 수량으로 환산하면 450만 개가 넘는다.

시민들 스스로가 종이컵 모으기에 동참하고 있다.

“아주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지방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했더니 이만큼 종이컵을 모아서 택배로 보내 주셨지 뭐예요.”

“아주머니! 이거 드리려고 모아 놓았어요. 제가 옮겨 드릴게요.”

“아주머니. 힘드시죠? 정말 대단하세요. 텔레비전 나온 거 봤어요.”

이금자 씨의 변함없는 노력과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 역시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나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금자 씨의 작은 몸짓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선 종이컵 모으기가 원주시에서 하나의 환경운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원주시의 모든 사람이 종이컵 모으기 운동과 이금자 씨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3년 1월 12일 KBS 교양프로그램 ‘강연 100℃’에 그녀의 이야기가 방영되면서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 이후로 이금자 씨는 새마을지도자로 매주 강단에 서고 있다. 이금자 씨의 사연이 알려지고 방송에서 소개도 되다 보니, 요즘에는 종이컵 모으기 못 지않게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데 그 강연 수익도 모두 기부로 돌려 버리고 만다.

이금자 씨가 부를 때마다 달려와서 모아 놓은 종이컵을 수거해 주고, 강연



김간난 부녀회장, 이원희 사무국장과 함께



방안 가득한 축하 화분과 꽃다발

을 갈 때마다 운전기사가 되어 주는 원주시 새마을회 이원희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종이컵 모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도 후원을 모두 거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금자 씨는 몸은 작아도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기쁨만으로도 모든 보상은 이미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금자 씨. 이금자 씨의 이야기는 아픈 세월을 딛고 일어난 봉사 와 희망이기에 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

Interview

이금자 / 종이컵을 모아 기부하는 작은 거인

“봉사는 나의 존재감을 찾는 일”

Q. 처음 종이컵 모으기를 시작할 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낸 방법이 있었나요?

A. 그 몸으로 어떻게 종이컵을 모으려고 그러냐고 무례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하는 일이라고 하니 오히려 오기가 생겼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에 지고 사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Q. 왜 특별히 아이들을 돕기로 하셨나요?

A.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하도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해 보고 자라서 그래요. 내가 어린 시절을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Q. 힘들 때가 많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신가요?

A. 사람 마음을 알아 주고 상처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최고잖아요. 물질이야 잠깐 뿐이죠. 우리 지역인 원주시새마을회 이원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김간난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저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거든요. 격려도 많이 해주고요. 그러면 힘이 나요. 마음에서 힘이 나면 무거운 것도 가볍하게 들 수 있잖아요.

Q. 봉사를 계속해 오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봉사라는 게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감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장애인이지만 육체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거든요.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게 바로 봉사였어요.